



[뉴스] 적반하장 민노총 정부에 참가자 감염 경로 요구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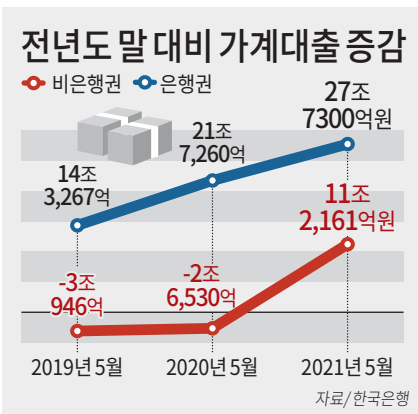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3276.91 (0.00)	코스닥	1051.98 (0.00)
금리 (연고채 3년)	1.451 (-0.046)	환율 (원-달러)	1139.50 (-2.00) (16일)

# “비은행 대출 증가 땐 DSR 40%규제 도입”

# 현대차 임단협 진통... 이번주 파업 분수령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개월 만에 11조원 늘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은행에서 6억원 초과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비은행권은 DSR규제가 60%까지 적용돼 상대적으로 규제범위가 느슨한 곳으로 차주들이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 ◆비은행권, 대출심사 강화

이에 따라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도 대출규제가 시

사측, 2차안 제시했지만 노조 거절 3차 제시안도 이견 땐 고강도 투쟁

국내 완성차 업계 '말형'인 현대자동차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부족현상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6일 울산공장 동행룸에서 올해 임단협 16차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9000원 인상 ▲성과급 125%+35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무상주) ▲

2021년 특별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10만 포인트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1차 제시안보다 기본급이 9000원 인상됐고 '성과급 25%+50만원' 그리고 주식 5주가 추가됐다.

노조는 내부 논의 끝에 미래산업협약과 정년연장에 대한 추가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2차 제시안을 거절했다. 노조는 사측에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틱스 등 미래산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을 국내에서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협약과 ▲정년연장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30%와 지급 기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주 초 회사가 3차 제시안을 내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

조는 20일 고강도 투쟁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조합원 4만3117명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83%가 찬성표를 던지며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의 여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내·외 환경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 갈등 없이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했으나 올해 협상에서는 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비은행권의 DSR 40%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완화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DSR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3.3% 증가 높아진 시중은행 대출 문턱에 저축은행 등 대출 증가폭 확대

높은 금리에 리스크 확대 우려 금융위, DSR 40% 확대 등 강구

###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5월 기준 335조420억원으로 지난해 말(323조8260억원)과 비교해 11조2160억원(3.3%)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530억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기준 35조900억원으로 지난해 말(31조1580억원)과 비교해 3조5090억원 늘었다. 상호금융은 같은 기간 7조8881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DSR 40%를 적용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

행 되기 전 개별은행을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인 바 있다.

비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 이후 저신용자 대출취급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저신용자에게는 한도를 줄이고, 고신용자에게는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확대되면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 비은행의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까지 이어질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저축은행 13.76%, 상호금융은 3.22% 등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2.89%) 대비 최대 10.87%포인트(p) 높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임시선별검사소 현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현장을 방문해 검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셀트리온 ‘렉키로나’, 델타 변이에도 효과

‘람다 변이’도 중화능 결과 확보 변이 바이러스 효능 시험 지속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가 최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 페루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 변이에 대해서도 중화능(감염을 억제하는 방어능력) 결과를 이미 확보해 주목을 받는다.

1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대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실험용 쥐 49마리를 대상으로 렉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약물을 투입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바이러스 역가가 크게 감소하고, 체중 감소 방어 효과 등 임상적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사람 치료 용량 대비 낮은 용량 투여 시에도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입증됐으며, 실험용 쥐의 경우 생존율에서도 렉키로나 투여군 생존율은 100%인 반면 대조군 생존율은 0%로 나타났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브라질 발 ‘감마’ 변이와 남아공 발 ‘베타’ 변이에 이어 인도 발 ‘델타’ 에 대해서 모두 우한발 야생형과 동등한 유효성을 확인

했다. 또 셀트리온은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인 유행을 하며 우점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의 세포수준 중화능 및 동물효능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남미 페루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 변이에 대해서도 슈도바이러스(유사바이러스)를 이용한 중화능 결과를 이미 확보했다. 특히 람다 변이에 대해서는 기존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보다 강한 중화능을 보임을 확인했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광주 5·18모지 참배에... 김두관 “신성한 묘비에 더러운 손 치워라”  
▲추미애 “제가 민주당 맘머느리... 노무현 탄핵, 가장 후회” /사진 뉴스스

▲홍준표 “서울 강북 재개발 아파트, 현시세 1/4로 공급”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 19일 관련 회의 계획 중



▲르노삼성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 부산공장 19·20일 멈춘다 /사진 르노삼성  
▲벤츠-BMW-아우디-테슬라, 상반기에만 16만대 판매 육박